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 호 2 월 20 일

평양 근 로 자 사 1 9 6 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 (218)
1963년 2월 (하)

(반 월 간)

차 례

—문 답 학 습—

대안 체계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

윤 현

대안의 사업 체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위대한 대중적 혁신 운동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업 관리 체계가 확립된 이후 모든 작업반과 모든 직장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 천리마 직장 운동에 궐기하였으며 전체 공장이 천리마 공장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섰다.

그 후 이 공장에서는 천리마 작업반이 31개로부터 109개로 장성하였으며 제관 직장을 비롯한 수 많은 직장과 전체 공장이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다.

1년 남짓한 기간에 대안 전기 공장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이와 같이 급속히 발전한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급속히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의 경험은 새 사업 체계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우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새 사업 체계 하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어떻게 공고 발전되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것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대중적 혁신 운동이며 인민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리의 로동 계급에 의하여 창조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오늘 공업, 농업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보건 등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였다.

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대중 속에서 발전되여 온 밑으로부터의 이 운동은 우로부터의 지도의 개선과 밀접히 결합될 때 그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위대한 군중 운동은 반드시 위대한 지도 방법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전반적으로 촉진시킨 위대한 청산리 방법은 대중 속에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심화시키고 가일층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그러나 인민 경제에 대한 낡은 관리 지도 체계는 청산리 방법의 관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지장을 주었다. 그것은 낡은 체계가 다분히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관리 체계로서 이 체계는 혁명적인 사업 방법, 혁명적인 대중 운동의 본질적 요구와 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과거의 낡은 체계의 결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과거의 공장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적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관리 체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료주의적이며 기관 본위주의적이며 개인 리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이와는 반면에 대안의 사업 체계는 과거의 사업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공산주의적 기업 관리의 요소를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는 가장 우월한 사업 체계이다. 새로운 사업 체계는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는 체계이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사업 체계이다.

새로운 사업 체계가 천리마 작업반 운동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이 체계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그의 본질적 내용에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리 체계는 공산주의적 생활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사업 체계이며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공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는 사업 체계이다. 이 사업 체계는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적극 발양시키며, 대중들을 기업 관리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그의 본질적 내용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 체계의 철저한 확립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는다.

그러면 대안의 사업 체계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우선 새 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적 생활 원칙을 생산과 생활 과정에서 제도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공고히 하며 더욱 심화시킨다.

과거의 사업 체계 하에서는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 가 도와 주는 것이 힘들었고 아래에만 책임을 지우고 내려 먹이는 수가 많았으며, 작업반 또는 직장 호상간에는 서로 협조하는 기풍이 부족하고 기관 본위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으며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부족하고 자기의 일, 자기의 몫만을 책임지며 시키는 일이나 하려는 개인 리기주의적 경향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체계에서는 사람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없었으며 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가져 올 수 없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과거의 사업 체계의 조건 하에서도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적 재능을 발양시키는 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때에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진 낡은 체계와의 모순 속에서,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그의 발전이 제한 받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였다. 낡은 체계에서는 아직도 공장적으로 공산주의적 생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고, 낡은 생활 기풍의 영향을 부단히 받는 조건 하에서, 따라서 주로 작업반 성원들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과 독자적인 활동에 의하여서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이 유지되고 공고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진행되였다. 당시에는 이 운동의 발전은 해당 당 조직들과 주로는 개별적 작업반 내의 핵심들, 모범적인 작업반장들의 역할에 많이 의존되여 있었으며 일부 작업반들에서는 작업반장이나 작업반 내 핵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주저 앉군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에는 일부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공산주의적 기풍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것으로 되지 못하고 열이 올랐다 식었다 하며, 일부 경우에

는 칭호를 쟁취한 후 열의가 저하되는 등의 본질적인 결함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부족점과 제한성들이 결정적으로 극복되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관리 체계에 의하여 보장되고 공고화된다.

왜냐 하면 새 관리 체계는 모든 직장, 모든 작업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 원칙이 구현되도록 공장적으로 제도화하며, 체계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새 체계 하에서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며 모든 사람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작업반과 직장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는 것이 제도화되여 있다.

새 체계 하에서는 계획 작성으로부터 내부 채산제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공장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생산에 대하여 그들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대안의 사업 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의 사업 체계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체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단결시키며 그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기 때문에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공산주의적 기풍이 공장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게 됨으로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아주 유리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장 내 개별적인 당 조직, 개별적인 작업반장과 핵심들의 역할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장 전체의 사업에 보다 크게 의존되게 되였으며, 제도와 체계에 의하여 공고히 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당 사업 체계의 개편은 사람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 체계 하에서는 당의 지도가 작업반원들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될 수 있으며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실속 있게 할 수 있다. 공장 당 위원회 위원들과 담당 지도원들을 비롯한 모든 당 일'군들이 작업반원들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그들의 성격, 취미, 기술 기능 수준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구체적으로 료해할 수 있게 되였고 이에 기초하여 매개 작업반원들에 알맞는 교양 사업을 더욱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 관리 체계는 비단 당 일'군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며 사람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동시킴으로써 집단적 혁신 운동을 더욱 앙양시키도록 한다.

이것은 새 관리 체계 하에서 모든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작업반이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더욱 힘 있는 거점으로 되게 하며 공산주의 교양의 학교로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더 앙양시키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새 사업 체계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상적으로 보다 견실하게 장성할 수 있게 하며 부단히 상승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대안의 사업 체계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작업반의 범위를 훨씬

벗어 나서 직장의 범위, 공장 전체의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기관 본위주의, 개인 리기주의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다분히 남아 있는 낡은 체계 하에서는 작업반 호상간, 직장 호상간에서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을 실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낡은 관리 체계 하에서는 천리마 작업반들이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락후한 작업반들을 이끌고 나갔으며 선진적인 작업반과 락후한 작업반간에는 서로 방조하고 방조 받는 밀접한 련계는 있었지만 이들 호상간에는 생활 기풍에서 아직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 같이 공산주의적인 생활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 원칙이 개별적인 선진적 작업반들에서는 실현될 수 있었으나 그 범위를 벗어 나 전체 직장, 전체 공장의 범위에서 동시에 이것을 실현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이와 같이 낡은 체계 하에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비교적 적은 인원의 범위에서, 주로 작업반의 범위에서 실현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 운동은 주로 천리마 작업반의 수를 점차로 증가시키며 그것이 직장적으로 또는 전체 공장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서 즉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천리마 직장 운동에로, 천리마 직장 운동이 천리마 공장 운동에로 점진적으로 계단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방법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때문에 과거에는 천리마 직장 운동, 특히 천리마 공장 운동은 매우 힘들었으며,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요할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위해 직장 또는 공장 전체가 일치하게 동원되는 데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

대안 체계의 확립은 천리마 직장 운동, 천리마 공장 운동에서의 이와 같은 제한성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작업반 단위를 벗어 나서 전체 직장, 전체 공장의 범위에서 동시에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새 체계 하에서는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이 개별적인 작업반들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장, 전체 공장적으로 발양되며, 작업반 내 사람들 호상간에서만 아니라 작업반과 작업반 사이, 직장과 직장 사이, 관리 부서들 호상간에서도 실현되게 된다.

또한 새 체계에서는 대중들이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작업반의 범위를 훨씬 벗어 나서 공장 내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로 하여금 전체 공장의 관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는 계획 작성 사업으로부터 로동 정량 사정, 제품 검사, 내부 채산제의 도입 등 기업 관리의 모든 측면들에 전체 생산자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작업반 사업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직장의 사업, 공장 전체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보수를 받는 일 이외에 전체 공장의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며 그에 대하여 자신들이 직접 책임지는 립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며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서 활발히 발전되게 된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새 관리 체계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보다 급속히 앙양시킬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 체계 하에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저절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반적으로 더욱 급속히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에 의해 조성된 유리한 조건들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그것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투쟁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앙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문제이다. 새 공업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강화하여 모든 지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천리마 기수답게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보다 훌륭히 발양시킬 때만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때문에 당 및 행정 일'군들과 직맹 일'군들은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가 가져다 준 유리한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대안 체계는 당 및 직맹 일'군들과 행정 일'군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낡은 체계 하에서는 비록 지도 일'군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궐기한 작업반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낡은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결함으로 하여 밑에 내려가서 작업반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주기 힘들었다.

과거의 관리 체계는 행정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체계였던 조건 하에서 지도 일'군들이 천리마 운동에 궐기한 작업반들에서 걸린 문제들을 실속 있게 풀어 줄 수 없었다.

그들은 과거에 소재요, 공구요 하고 무사 분주히 돌아 다녀야 했고 따라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도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체계는 모든 일'군들이 사람을 교양하는 사업에 힘을 돌리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결의 조항들을 하나 하나 실천하는 데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작업반 및 직장 호상간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더욱 활발히 조직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새 체계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놓았다.

문제는 지도 일'군들이 이 유리한 조건들을 어느 정도 광범히 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공장적인 통일적인 계획 밑에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하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공산주의적 자각성을 더욱 제고하는 데 보다 심중하고 인내성 있는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투쟁을 더욱더 정력적으로 전개할 때 동시에 대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도 성과 있게 수행될 것이다.

대안 체계 하에서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백 재 욱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며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지도에서의 근본적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부단히 변화하는 현실에서 가장 훌륭히 해결됨으로써만 근로 대중의 창조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이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왔다.

특히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대안의 사업 체계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가장 훌륭한 체계이다.

오늘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하여 새 체계가 도입된 많은 공장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대안의 사업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월성에 있다.

때문에 대안의 체계가 어떻게 두 자극을 강화하며 결합하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문제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새로운 사업 체계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고도로 강화하는 체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 도덕적 자극은 로동이 영예로운 것으로 된 사회주의 하에 와서 새롭게 생긴 로동에 대한 자극이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한다는 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제도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고상한 태도를 소유하고 로동 과정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체계가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높이는 훌륭한 형태라는 것은 우선 당 사업 체계가 개편됨으로써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관리 체계는 일정한 부족점이 있었다. 종래의 관리 체계는 주로 생산 관리 일면에만 치중하고 생산자 대중에 대한 정치 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기구는 매우 미약하였다.

특히 공장 당 위원회가 공장 관리 운영의 최고 령도 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조직 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생산자들 속에 당의 지도가 깊이 들어 가

는 데 일정한 지장을 주었다. 결과 낡은 체계 하에서는 당 정책이 기동성 있게 침투되기 힘들었고 정치 사업을 심도 있게 하는 데 일정한 부족점이 있었다.

새로운 관리 체계는 공장 당 위원회의 기구를 확대하고 당 조직을 정비 강화함으로써 당 위원회가 공장의 최고 령도 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사람들과의 사업을 보다 훌륭히 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열성을 고도로 높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 운영 사업에 가장 광범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당 위원회가 집체적 령도를 잘 보장하면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킬 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이 발동되면 전체 근로대중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이 다 생산을 잘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욱 잘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모든 문제를 다 옳게 풀어 나갈 수 있으며 생산에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새 체계가 모든 생산자들을 기업 관리 운영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은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인민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모든 생산 수단들의 주인으로 된 것은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근로자들이 인민 주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이라는 자각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는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는 공장 관리 운영의 실제적 주인으로 되였다는 자각으로부터 로동에 대한 새로운 열성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게 한다.

낡은 관리 체계는 생산의 책임은 다만 지배인이 혼자서 지고 로동자들은 지배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그저 자기 맡은 일이나 하고 전체 공장에서 생산이 잘되고 못되는 데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였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생산자들의 창발성을 충분히 계발할 수 없는 것이다.

새 체계는 계획 작성에서부터 생산자 대중의 높은 정치 도덕적 열성이 발휘되게 한다. 대안의 체계에서는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과 토의하여 작성하는만큼 근로자들은 계획 작성 과정에서 온갖 창발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제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며 그 사업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명백히 알게 된다. 이것은 생산자 대중으로 하여금 생산의 목적과 전망을 명확히 알게 하며 사업에서 거대한 정력을 발휘하게 한다.

만약 계획을 우에서 개별적 사람이 작성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쪼개 내려보낸다면 그 계획은 군중들에게 동원적인 것으로 되지 못하며 군중들의 계획 수행 과정은 피동적인 행동에 그치게 될 것이다.

새 체계는 계획 작성 뿐만 아니라 생산 조직, 기대 설비 관리 기타 기업 관리 사업 전반에 생산자 대중들을 광범히 인입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인다.

이리하여 새 체계 하에서는 과거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천리마 기수들이 창조한 대중적인 관리 운영의 싹들을 확대 공고화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례하면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새 체계가 도입된 결과 직일 작업반장과《사회적 계산원》,《출근 및 로임 담당자》,《공구 담당자》,《절약 초소원》,《생산 문화 담당자》,《안전 및 검사원(사회적 검사원)》등 분공을 매개 사람들이 한가지씩을 다 맡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생산 과정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되였고 모든 사람들이 책임적 립장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로동 정량을 높이고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검사하고 있다.

기업 관리에 대중의 광범한 참가는 과거에 파묻히였던 거대한 예비를 발동시킬 수 있게 하며 집단적 혁신 운동과 기술 혁명의 불'길을 더욱 앙양시킬 수 있게 한다.

* *

새로운 사업 체계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는 훌륭한 체계이다.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은 매개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한 것만큼 분배 몫을 받을 수 있게 된 데로부터 생기는 그들의 로동에 대한 의욕을 말한다.

새로운 사업 체계가 물질적 자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새 체계가 사회주의 분배를 정확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정확히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광범한 군중적 토의에 의하여 진행되며 사업에서 책임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로동 정량, 로동 결과의 평가가 전임 계획원이나 정량원 등 개별적 일'군들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로동량의 실질적인 투하와 그에 대한 분배 몫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 체계 하에서는 생활을 통하여 실질적인 로동의 투하량을 정확히 아는 군중들 자신이 로동 정량을 제정하고 로동 결과를 평가한다.

이것은 생산자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출한 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한 분배 몫이 돌아 온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며 따라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강화된다.

대안 전기 공장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점수제에 의한 로력 평가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공업 분야에서 정확히 관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래 로동이 기능 급수에 의해서 평가될 때에는 로동의 실질적인 투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급수가 높고 낮은 것이 기준으로 되였던 것만큼 기능 급수가 낮은 사람은 많은 로동량을 투하한 경우에도 기능 급수가 높은 사람에 비하여 적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단순한 기능 급수에 해소시키는 것이며 근로자들이 열성을 발휘할 때에 무한한 생산적 예비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낡은 방법이였다.

그러나 점수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투하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매개인에게 점수를 주고 그에 해당한 분배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생산 의욕을 물질적으로 자극한다.

특히 점수제에 의한 물질적 자극의 새로운 특징은 그것이 개인을 위한 물질적 자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를 발양하며 공산주의적 교양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점수제에 의한 평가는 다만 생산 일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활동과 생활에서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노력하는 측면에 이르기까지 전 생활 과정을 포괄하여 평가해 준다.

점수제는 또한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작업반, 직장 등 집단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만약 어느 한 작업반과 직장이 다른 작업반과 다른 직장을 동지적으로 협조하거나 기타 생산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 일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 증산 경쟁 총화에서 평가하고 그 집단 전체 성원에게 해당한 물질적 보수가 제공된다.

또한 새 체계 하에서는 직장 담당 생산 지령원, 계획원, 검사원 등 참모 성원이나 혹은 자재 운반공을 비롯한 공급 부서 성원들에게도 그들이 담당한 작업반이나 직장의 국가 계획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원칙이 실시되고 있다.

새 체계가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다른 하나는 그것이 내부 채산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는 데 있다.

내부 채산제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결정적 조건이다. 내부 채산제는 작업반에 제기된 국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설비, 로력, 자재, 원료를 가지고 작업반 내의 모든 예비를 동원하여 생산을 수행하며 자체로 수지 발란스를 맞추고 초과 리득의 일정한 부분을 보수 형태로 받는다.

우리 나라에서 내부 채산제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경험도 그것이 국가 리익과 개인의 물질적 관심성을 훌륭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내부 채산제는 종래의 체계 하에서는, 즉 자재를 우로부터 정상적으로 날라다 주지 않고 생산 지도 체계가 정확하지 못하며 작업반 내 로동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조건 하에서는 도입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새 체계 하에서는 자재를 우에서 정상적으로 내려다 공급해 주며 생산 조직이 째이고 생산 지령 체계가 과학적으로 조직되고 모든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의 주인으로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이 보장됨에 따라 내부 채산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였다.

례하면 대안 전기 공장에서 작업반 내부 채산제 운영은 과거 낡은 체계 하에서는 좀체로 도입되지 못하던 것이 새 체계 하에서는 140 여개의 거의 모든 작업반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업반 상금제, 직장 상금제는 개인적 물질적 관심과 집단적 리해를 결합시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발양하는 방향에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이미 청산리에서 김 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작업반 우대제 원칙을 공장 기업소에 구현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을 위한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작업반과 직장이 자기 앞에 부과된 국가 과제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한 량을 그 집단 성원들에게 상금으로 지불된다.

이것은 생산자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개인의 생산 과제 수행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 직장의 전체 생산 과제 수행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서로 고무하고 협력하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 준다. 이러한 물질적 자극의 형태는 동시에 생산자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미풍을 발휘시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 체계는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다 같이 백방으로 강화하며 또 그것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가장 훌륭한 관리 형태이다.

특히 그것은 두 자극 중에서도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방침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 실정에 적응하게 확고히 구현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 질수록 로동에 대한 두 자극 중에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역할이 더욱 증대된다. 사회주의가 성숙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은 점차 보수를 받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자기 자신을 위한 로동의 필요성으로부터 로동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며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에 그때그때의 모든 조건에 맞게 점차 정치 도덕적 자극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것은 대중의 창발성과 열성을 사회주의 건설에 가장 훌륭히 인입하며 그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고 특히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더욱더 발양되고 있는 조건에 맞게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의 호상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였다.

대안의 관리 체계는 공장 당 위원회의 령도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직장, 작업반 등 생산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당 사업이 침투하게 하였으며 또한 당 일'군들뿐만 아니라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 작업반장 등 행정 기술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적인 사업 방법으로 부닥친 문제를 풀게 한다.

이것은 기업소 관리 체계 자체가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제 1차적 주목을 돌리도록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의 우위의 확고한 보장, 그에 물질적 자극의 튼튼한 결합, 이것은 대안 체계 하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를 비상히 제고시키며 생산 계획 수행 과정에서의 그들의 새로운 공산주의적 도덕 풍모를 활짝 꽃피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사업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도입하며 그에 청산리 방법을 튼튼히 결합시킬 때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성은 더욱 높아지고 우리 나라 생산력의 발전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 건설에서 새로운 관리 체계의 전면적 확립

김 두 삼

우리 당은 최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기본 건설 부문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에서의 지도 체계의 개편과 함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결정적으로 강화케 하는 획기적 사변이며 기본 건설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의 새로운 관리 체계의 확립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에서와 7개년 계획 기간 기본 건설의 방대한 과업 수행에서 새로운 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건설 관리 체계의 개편은 현실 발전의 객관적 요구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같이 기본 건설에 대한 관리 지도에서도 맑스-레닌주의 당의 확고한 령도,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관리 사업에의 인입,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계획적 지도 등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제반 원칙들이 철저히 실현되여야 한다. 기본 건설 부문 사업의 성과는 이러한 원칙들이 부단히 변화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철저히 관철되는가에 중요하게 관련된다.

건설 관리 지도에서의 이 기본 요구의 실현 형태는 매 시기의 생산력 수준, 관리 및 기술 지도 력량의 준비 정도, 대중의 의식 상태 등과 같은 주객관적 제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매 단계마다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건설 관리 체계를 부단히 개편 완성하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 왔으며 그를 통하여 전후의 방대한 기본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지도하여 왔다.

금번 우리 당에 의한 건설 관리 체계의 개편은 기본 건설 사업의 발전 행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요구를 가장 정확히 해결한 획기적 조치로 된다.

종래 우리 나라의 건설 관리 체계에는 부문별 성—관리국—기업소 체계에 의한 직영식 건설 관리 체계와 도시 및 농촌과 일부 산업 건설에서의 중앙 집중적 지도에 기초한 전문 건설 관리 체계의 두 형태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였고 건설 력량이 비교적 적었으며 또한 복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당시의 실정에는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가장 합리적인 것이였다.

복구 및 개건에 있어서는 생산과 건설이 하나의 경제 단위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만큼 매개 생산 기업소 또는 관리국, 성이 한편으로는 생산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자기 부문, 기업소의 복구, 정비, 개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직영식 건설 형태가 합리적이였다. 그것은 부문, 기업소 자체의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방대한 복구, 개건 사업을 급속한 기간 내에 수행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극히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으며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 건설 부문의 관리 및 기술 일'군 대렬을 대량적으로 육성하고 기본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최단 기간 내에 축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달라졌다.

대대적인 개건, 확장과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는 7개년 계획은 건설에 대한 보다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기본 건설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였으며 그의 내용이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새로와졌다. 7개년 계획 기간의 총 기본 투자 규모는 그전 7년 간의 2.3배에 달하며 개별적 대상의 규모도 훨씬 커졌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복잡한 생산 기술 공정과 최신 기술을 도입할 것을 전제로 하는 대상들이다. 이러한 현대적 기업소들의 건설을 전문 건설 지도 기관이 아닌 데서 지도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기본 건설 력량은 이미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 당의 공업화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통하여 건설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현저히 강화되였다. 조립 부재 생산 기지가 확고히 축성되였으며 건설 기계 설비의 능력과 건설 기관, 기업소들의 기술적 장비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또한 기본 건설 부문에는 유능한 건설자들과 설계 및 기술 일'군들의 대렬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기본 건설 부문은 막대한 사회적 로동과 물질적 및 재정적 자원을 관리 운영하는 인민 경제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 강화 발전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건설을 더욱 전문화하며 그것을 중앙 집중적 통일적 지도 체계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였다.

오직 전문적인, 중앙 집중적인 통일적 지도를 통하여서만 건설을 위한 생산 공정의 선택과 기술 문건의 준비, 정확한 시공 조직, 조업 개시 순차의 규정, 설비 및 자재를 비롯한 모든 조건의 적시적 보장 등 건설 행정의 모든 사업을 더욱더 과학적인 기술 경제적 타산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기본 건설 부문에 조성된 이러한 새로운 조건과 그 앞에 제시된 웅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토대우에서 우로부터의 중앙 집중적 통일적 지도에 기초한 전문화된 건설 관리 체계를 유일적으로 확립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건설 부문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 올 것이다.

이제는 자그마한 한 개 지구 내에서도 서로 다른 계통의 기업소들이 류사한 대상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성이 완전히 퇴치될 수 있게 되였으며 건설 기관, 기업소들의 기관 본위주의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건설 력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건설의 공업화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더욱 높은 물질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움에 있어서 획기적 계기로 될 것이다.

새로운 건설 지도 체계는 대안 사업 체계의 구현

금번 당이 취한 조치에 의하여 종래 각 성들과 도들에 분산되여 있던 전문 및 직영 건설 기관들은 6개의 지구별

단위로 조직된 지구 건설 위원회들에 통합되였으며 전국적인 기본 건설은 국가 건설 위원회가 이 6개 지구 건설 위원회를 통하여 유일적으로 조직 지도하게 되였다.

개편된 새로운 건설 관리 체계에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과 직접 련결되여 있는 일부 건설 대상, 기존 시설의 대보수, 소규모의 확장 대상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 운수, 체신, 항만, 관개 시설들과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중앙 및 지방의 전문적 건설 지도 기관이 담당하게 되였으며 중형 건설 기계 및 운수 수단들과 건설 부문의 설비 조립 력량, 설계 력량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로부터의 통일적 지도의 원칙, 자재 및 기술 준비 등 일체 생산 조건을 우에서 보장하는 원칙, 생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경제 관리에의 인입 등 대안 체계의 기본 원칙들을 건설 부문의 실정에 맞게 전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우선 새로 개편된 건설 관리 체계는 기본 건설에 대한 중앙의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계획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개편된 건설 관리 체계에서는 종전에 각 성과 도들이 제가끔 분산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건설 및 설계 사업을 유일한 전문 건설 지도 기관인 국가 건설 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 하에서 진행하게 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당의 의도가 신속 정확히 침투 관철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 건설 사업에서 발로되던 일부 기관 본위주의적 현상을 제거할 수 있게 되였으며 건설의 분산성을 방지하고 일체 건설 력량과 기술 장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전국적 범위에서 건설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여 중점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 대상의 조업 개시 기일을 촉진하고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보다더 제고할 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새 건설 관리 체계는 전문 건설 지도 기관들을 통하여 건설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보다더 심화시킬 수 있게 하며 지구 건설 위원회를 통하여 자재 공급 및 업무 행정 등 물질적 보장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통일적 지도 원칙에 기초한 새 건설 관리 체계는 건설의 관리 운영에서 각 지구들의 독자적 역할을 적극 높이고 전문적 건설 기관들의 지도를 현장에 접근시킴으로써 실지 건설 행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가장 훌륭히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사실에 있어서 종래 전문 건설 지도 력량이 부족하였던 개별적 성, 국 및 도들과 같은 경제-행정 기관들이 급속히 확대 발전하는 생산 행정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면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즉 대상의 확정, 설계 사업에 대한 지도와 설계의 적시적 보장, 건설의 계획화와 계획 수행에서의 기술적 지도, 자재 업무 행정에 대한 지도, 설비 보장을 위한 협동 생산의 조직, 건설의 기술 발전에 대한 지도와 통제 등을 일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는 힘겨운 일이였다.

따라서 우리 당이 유일한 중앙 건설 지도 기관의 지도 하에서 지구별 전문 건설 기관, 기업소들이 지구 내의 일체 건설 사업을 담당 수행하는 사업 체계를

를 확립한 것은 성, 국 범위의 각이한 건설 관리 기관들과 도 건설 관리 기관들을 통합 축소하면서도 건설 사업의 복잡한 경제적 및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 가장 합리적인 조치이다.

새로 개편된 건설 관리 체계는 각급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고 전체 건설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 혁명적인 관리 운영 체계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건설 발전의 새로운 조건과 환경은 기본 건설의 관리 지도 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가일층 높이기 위하여 이 부문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며 광범한 건설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더욱 적극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관리에서의 당의 령도는 대중으로 하여금 제기된 경제 과업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위원회가 집체적 령도를 잘 보장하면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킬 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이 발동되면 전체 근로 대중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이 다 생산을 잘 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욱 잘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이상 더 철저한 집체적 령도는 없으며 이 이상 더 공장의 집체적 력량을 발휘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옳게 풀어 나갈 수 있으며 생산에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새로운 건설 관리 체계에서는 중앙 및 지방의 건설 관리 기관과 건설 기업소들에 당 위원회와 부문 당 위원회, 기업소 당 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각급 당 위원회들이 기관, 기업소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의 령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따라서 오늘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각급 기관, 기업소 당 위원회가 건설의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결정하며 조직하며 지도하게 됨으로써 건설자 대중은 당 조직을 통하여 경제의 관리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고 관리 운영에서의 집체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게 되였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건설 지도 기관들은 당 위원회의 통제 밑에서 전체 당원들과 건설자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기본 건설 부문에 제기된 과업을 적시에 수행하게 하는 자기의 기능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건설 관리 체계에는 대안의 사업 체계 그대로 군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에 의거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이 철저히 구현되고 있다.

새 체계의 확립과 건설 부문 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

우리 당에 의한 건설 관리 체계의 개편은 앞으로 우리 나라 기본 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올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 체계의 개편은 사업 개선의 첫 출발에 불과하다.

새로 개편된 지도 체계의 생활력의 발현은 이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치 실무적 준비 정도와 사업 방법 및

작풍에 달려 있다. 특히 그것은 건설 부문의 지도 일'군들과 모든 당원들의 강의한 의지와 혁명가적 기풍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지도 일'군들과 모든 당원들이 당이 취한 금번 조치의 의의와 그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고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여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강한 기풍을 확립한다면 새 체계의 확립과 그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난관들은 성과적으로 극복될 것이며 온갖 실무적 문제들도 훌륭히 해결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모든 일'군들 속에서 혁명가적 기풍을 수립한 기초 우에서 국가 건설 위원회 및 지구 건설 위원회와 설계 총국을 비롯하여 새로 조직되는 건설 단위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 새 체계에 의하여 건설 기관, 기업소들을 시급히 정비 완료하며 당에 충직하고 건설 사업 실천을 통하여 검열된 관리 및 기술 일'군들로서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새 체계가 요구하는 직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구 건설 위원회들을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간부들로 꾸림으로써 지구 내 각 부문 기본 건설 사업을 책임적으로 틀어 쥐고 옳게 조직하며 기업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를 능숙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매개 건설 단위들에서는 새 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일체 이관 통합 사업들을 신속 정확히 보장하며 당면하게 진행되는 금년도 기본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건설 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 경제 기관,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건설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옳게 리용하여 건설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함과 동시에 건설 대상의 선후차를 정확히 가리여 중요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며 일체 깜빠니야 공사를 근절하고 건설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 계획화에서는 건설을 직접 지도하는 사람이 건설자 대중과 충분히 토의하여 계획을 작성하며 작성된 계획이 건설자 자신의 것으로 되게 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모든 력량과 보장 조건을 충분히 타산하여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기본 건설이 인민 경제 각 부문 기관, 기업소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진행되는 조건 하에서 매개 기관 및 기업소들 호상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기초 우에서 협동 작업을 정확히 조직하며 집행에서의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술 과제를 제기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 건설주 기관으로부터 설계, 건재 및 설비 생산, 수송 및 시공 등을 담당한 모든 단위들에서 기관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부과된 임무와 협동 과제를 적시에 어김 없이 수행하며 기술 과제 없는 설계, 준비되지 않은 건설은 착수하지 않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더우기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설계 기관들과 기계화 및 설비 조립 기업소들, 수송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 력량을 집중적으로 동원 리용함으로써 새 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야 한다.

새 체계의 우월성과 그의 생활력을 발양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건설 부문 모든 지도 일'군들이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건설 부문 지도 일'군들은 대담하게 사무를 간소화하고 아래에 내려 가야 하며 군중들 속에 침투하여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군중을 발동시키며 당 조직과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해 나가는 당적 사업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 부문 지도 일'군들은 현실의 요구에 적응하게 기술 및 경제 지식을 소유하고 대중 속에 들어 가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함으로써 매일 매시각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적시에 포착하고 풀어 주면서 조직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도 일'군들이 밑에 내려 가 청산리 방법에 의하여 실속 있는 지도를 줄 때만이 시공 과정이 복잡한 건설장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건설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

오늘 건설의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건설 부문 앞에 제기된 중요한 전투적 과업이다.

모든 건설장들에서 운반, 상하차, 굴착, 분쇄 작업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작업의 기계화를 최단 시일 내에 완성하고 점차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와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기계 설비의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건설 기관들의 공무 동력 직장들과 지구 건설 위원회들의 수리 기지를 강화함으로써만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 기계 공장들에서 대 중소 건설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여 주는 것이 건설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건설 부문 지도 일'군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건설 작업을 기계화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건설의 공업화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본 건설의 새로운 관리 체계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며 특히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건재 생산 기지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재 생산을 개선 강화하여 각종 건재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특히 그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확대함으로써만 우리의 건설은 정상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기본 건설 부문에서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것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건설 기관들과 건설장들에서는 건설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발양시키고 그에 지도를 따라 세움으로써 로력과 자재를 적극 절약하면서 모든 건설물들을 더 빨리 더 튼튼하고 쓸모 있게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 부문 지도 일'군들은 대중 속에 우리가 진행하는 건설이 후손들에게 넘겨 줄 백년 대계의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모든 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 제고를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건설을 정상화하며 제도와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설계의 질을 높이고 건재 생산과 시공에서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을 준수하며 검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건설의 질 제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건설 부문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사람들의 능력, 체질에 맞게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로력 류

동을 방지함으로써 한 공수의 로력 랑비 현상도 근절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 정량 사업과 기능공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건설 부문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은 건설의 특성에 비추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건설 부문 지도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에 립각하여 후방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건설자들에 대한 부식물 공급 사업과 주택, 합숙 및 편의 봉사 시설의 보수 정비 사업을 일층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이동 작업이 빈번한 로동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거주 지역을 설정하여 주고 생활을 안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며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건설 지도 체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건설 사업 개선을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각급 당 조직들이 금번 기본 건설에 대한 지도 체계 개편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그 기본 내용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특히 이동이 심하고 항상 분산되여 작업하는 실정에서 건설 부문의 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는 것은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본 건설 부문의 당 위원회들이 집체적 령도 기능을 제고하여 키잡이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당 조직 생활을 정상화하며 건설자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전체 건설자들을 기본 건설 과제를 어김 없이 완수하는 데 훌륭히 조직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건설 부문의 지도 일'군들이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에 의거하여 건설에 대한 집중적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백방으로 발양시킬 때 기본 건설 부문에 내재하고 있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은 남김 없이 동원될 것이며 기본 건설 사업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이룩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따라 확고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

리 주 환, 현 재 학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년간에 농업 생산의 계속 부단한 발전이 확고하게 보장되였다.

1960년에는 해방 전 1944년 수준의 1.6배에 해당하는 380만 3,000톤의 알곡이 생산되였는데 1961년에는 단 한 해 동안에 알곡 생산이 27%나 장성되여 1944년의 2배에 달하게 되였으며 지난 해 1962년에는 전례 없는 엄혹한 대자연적 시련을 극복하고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는 대풍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자연 조건이 유리한 환경에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된 극히 불리한 기후 조건 밑에서 달성되였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사실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달성된 이 빛나는 승리를 개괄하여 작년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최근 년간에 계속 풍작을 이루었고 더우기 금년 같은 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루게 되였다는 것은 우리의 농업 생산이 기후 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 생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업과는 달리 생유기체인 동식물을 자연적 조건에서 성장시키는 농업은 기후 풍토의 영향과 기타 우연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따라서 그것을 계통적으로 부단히 장성시킨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에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만일 단백질과 영양소의 연구실적 제조의 너무나 전도 료원하며 너무나 문제'거리인 가능성을 도외시한다면).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업에 있어서의 대기계 공업은 결코 공업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은 모든 특징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전집, 제 5권 1분책, 212페지).

더우기 우리 나라 농촌은 해방 전까지 전통적으로 봉건적 령세농 경리 형태 하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극도로 저애되고 기술적 발전이 억제되여 왔으며 따라서 우리는 력사적으로 락후한 농촌 경리를 물려 받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자연 기후적 조건도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매우 불리한 점들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 농경지는 국토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그나마

평야는 적고 토지는 매우 척박하다. 특히 농업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강우량의 시기별 분포 정형이 고루롭지 못하며 작물의 생육에 일정한 수분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해마다 심한 가물이 계속되고 또한 여름철에는 홍수가 빈번하다.

이와 같이 력사적으로 락후한 농촌 경리를 물려 받았으며 자연 기후 조건이 농촌 경리 발전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농촌 경리를 공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 발전 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부단히 장성시킬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은 실로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자랑찬 승리적 결실이다.

이 성과는 오직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게 농업을 협동화하고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켰으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도를 보장한 우리 당의 제반 시책에 의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었다.

농촌 경리의 계속 부단한 발전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된 성과는 바로 우리 당에 의하여 농촌에 창설된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공고성, 그리고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 *

농촌 경리의 계속 부단한 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는 오직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 체계가 확립되고 발전하는 조건 하에서만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다.

확대 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실현하기 어려운 소농 경리의 조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적 대규모 생산의 조건에서도 농업은 계획적으로 발전될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토지의 임대에 의한 리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농업 제도 하에서는 농업 생산의 계획적 장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협업과 분업의 우월성을 충분히 리용할 수 없으며 토지의 비옥도 제고와 생산 과정의 기계화 및 선진 과학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며 따라서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만 농업 생산에서 우연적인 재해를 주는 일체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들을 충분히 리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정확한 협동화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농업 생산력을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로가 열렸으며 특히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을 부단히 계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가 조성되였다.

협동 경리의 조건 하에서 개인농 경리 당시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선진적 영농 방법들이 광범히 보급되고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작물 재배가 더욱 개선되였으며 농민들의 생산 열의가 고도로 앙양되였다. 그리하여 농업 생산력은 급속한 발전의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농촌 경리를 협동화하는 것만으로써는 농업 생산력의 계속적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술을 개조하여 농업 생산을 자연적 조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 나게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이 가지는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술을 개조하는 문제는 그의 부단하고도 계통적인 장성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여 감에 따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 착수하였으며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그의 기본 내용으로 규정하고 우선 수리화를 실현하는 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우리 당의 농촌 기술 혁명 수행 방침은 우리 나라 농업의 구체적 실정에 가장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였으며 그의 급속한 촉진은 농업 생산의 계속 부단한 장성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 생산의 특수한 사정으로부터 수리화가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이 기술 혁명 수행에서 수리화를 선차적인 중심 과업으로 규정하고 처음부터 이를 강력히 추진시킨 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가장 정확한 조치였다.

왜냐 하면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고 논'벼 재배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해마다 심한 가물과 홍수가 계속되는 우리 나라의 사정은 수리화를 절실히 요구하였기 때문이였다.

우리 나라의 조건 하에서 물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아무리 기계 기술과 선진 영농 방법이 광범히 도입된다 하더라도 농업 생산의 높고 안전한 수확을 이룩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리화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서 기본으로 됩니다.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고 논'벼 생산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해마다 심한 가물이 계속되고 여름철에는 또한 홍수가 빈번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논과 밭에 관개 체계를 확립하고 수재와 한재를 방지하는 것은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 의의를 가집니다》(선집, 제 6권, 189 페지).

우리 당이 농촌 기술 혁명 수행에서 우선 수리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력량을 집중한 것은 또한 당시의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구체적 형편을 정확히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우리 당은 서해안 지대에서는 관개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동해안 지대에서는 치산 치수를 위주로 하면서 관개 건설을 병행시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투자에 의한 대규모 관개 공사의 진행과 동시에 협동 농장 자체의 힘에 의한 중 소 관개 공사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전후 1954년부터 1958년까지만 하여도 이 부문에 55억원(구화폐)의 막대한 국가 자금과 다량의 기자재들이 투하되여 평남 관개 건설을 비롯한 629개소

의 저수지와 1,659개소의 양수장들이 건설됨으로써 관개 면적은 22만 7,000정보로부터 46만 3,000정보로 확장되였다.

우리 당이 수리화의 실현에 얼마나 큰 힘을 경주하였는가 하는 것은 1958년 9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이후 불과 6개월 동안에 37만 7,000정보의 관개 면적을 더 확장하여 논밭 관개 면적을 80만 정보에 도달시키는 방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 데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수되였다.

그 후 대규모의 기양, 어지돈 관개 공사가 완공되였으며 9만 정보의 몽리 면적을 가진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가 현재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800 여개의 대 중형 저수지와 약 6,800개의 고정 양수장, 약 9,000개에 달하는 보 시설이 있으며 관개 수로의 총 연장은 무려 7만 리에 달한다.

수리화의 실현은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가물과 홍수도 능히 이겨 내고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지난 해 우리 나라에서의 영농 과정이 명백히 확증하여 주었다.

작년에는 평양 지방만 보아도 4~5월의 강우량이 49.5미리메터(이 시기의 년 평균 강우량은 109미리메터)에 불과하였고 특히 밭 작물의 지상 출아와 논'벼 이앙기인 5월에는 단 1미리메터밖에 되지 않았다. 일제 시기 대한발이 들었던 1926년 4~5월에도 83.8미리메터의 비가 내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난 해의 한발이 얼마나 혹심하였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혹심한 한발에 뒤이어 3개월 이상에 걸친 긴 장마, 4회에 걸친 대홍수, 그리고 태풍까지 래습하였으나 우리 나라에 확립된 강력한 관개 체계는 이 엄혹한 시련을 훌륭히 이겨 낼 수 있게 하였다. 수리화의 실현이 농업 생산 발전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자료를 대비하여 볼 때 더욱 절실하게 리해된다. 해방 전에 대홍수로 이름난 무인년(1938)에 침수된 농경지는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무려 수 십만 정보에 달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그 전해(1937년)에 비하여 논 면적이 2만 여 정보 확장되였음에도 불구하고 266만 석의 미곡 생산 감수를 가져 왔었다. 이것은 자연력 앞에 무력하였던 당시의 정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는 강력하게 확립된 관개망에 의거하여 40년 래의 대홍수를 극복하고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였다.

수리화의 실현은 이와 같이 농업 생산의 높고 안전한 수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농촌 전기화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유리성을 리용하면서 전기화와 기계화를 촉진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전 인민적 운동으로 되는 중 소 규모 발전소 건설을 병행시킬 데 대한 당의 정확한 방침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로력적 열성에 의하여 이미 전체 농촌 리의 92.1%, 전체 농가 호수의 62%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이리하여 농촌에 필요되는 동력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은 자연 기후 조건의 영향과 함께 원시적인 로동 수단에 의하여서도 적지 않은 장애를 받아 왔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아주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논 농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토지의 기복과 경사가 심하며 간혼작, 이랑 재배와 같은 고유한 경종 체계가 있고 또한 각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의 심한 차이 등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실정과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 수준 기타 제반 사정을 세밀히 타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부합되는 기계화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은 평지대에서 점차 산간 지대로 기계화를 확대하며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종합적 기계화에로 넘어 가며 대기계와 중 소 기계, 현대적 기계화와 간단한 소기계화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으며 특히 1960년 8월 전원 회의 이후 황남 및 평남도에서 기계화를 촉진시킨 경험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 공업이 소형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기계를 대량 생산하게 됨에 따라 전면적인 기계화의 실현을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경지 100정보당 0.78대의 뜨락또르와 5만 여대의 각종 련결 농기계가 일하고 있으며 기경, 파종, 중경 제초, 탈곡, 운반, 토지 정리, 사료 분쇄 등 각종 농산 작업들이 기계화되고 있다.

1962년 한 해에만도 뜨락또르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량은 전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장성되였다.

총 작업량	135 %
기 경	118 %
정 지	116 %
파 종	124 %
중경 제초	136 %
추 수	230 %
수 송	163 %

기계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농업 생산에서 기본인 집약 농법의 요구에 적합하게 모든 농작업들을 선진적 기계 기술에 의하여 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위당 수확고를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게 되였다. 기경 작업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재래식 농기구를 가지고 10센치메터 정도로 기경하였거나 불경 파종이 많았는데 오늘에는 뜨락또르에 의하여 20센치메터 이상 깊이로 전면 기경을 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3경 체계를 수립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기경 체계의 확립에 의하여서도 20% 이상의 증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오늘 농업 생산이 기계화에 의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위해서는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과 함께 농촌 경리를 새로운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에 있어서 토양의 계통적인 비옥도의 제고, 옳바른 경종 체계의 확립, 채종 및 육종 체계와 물 관리 체계의 수립 등 수확고 제고의 제 요소들의 옳은 리용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농업에서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높

이고 그의 리용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토양의 비옥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토양의 옳은 보호 관리, 토양 개량, 과학적 시비 체계의 확립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제고시켜 왔다. 특히 당은 일제가 강요한 략탈적인 농법에 의하여 전국 농경지의 근 78%가 산성화된 실정(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에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958~1961년 간에 전국에 걸쳐 토양 성분을 조사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분석 료해된 자료에 근거하여 우선 산성 토양 개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였다. 실례로 함남도 정평군에서는 지난 2년 간에 8,000여정보의 논밭에 2만 8,000여톤의 소석회 또는 카바이드재를 시비하고 20만 톤의 자급 비료를 매 포전마다 정확히 살포하여 토양을 개량한 결과 논'벼의 정당 수확고는 군적으로 그전에 비하여 1.5톤 이상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산성 토양은 현저히 개량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산성 토양이 제일 많던 정평군은 71.2%로부터 23%로, 고산군은 65.9%로부터 11.9%로, 특히 자강도는 도적 범위에서 62.9%로부터 10.1%로 각각 저하되고 단위당 수확고가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와 함께 객토, 유기 광물질 비료를 다량 생산 시비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를 현저히 제고시켰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 영농 기술이 광범히 도입되였다. 례컨대 정보당 평균 륙상모에 비하여 20~30%, 수모에 비하여 40~50%의 증수를 가져 오는 랭상모가 전체 논 면적의 50% 이상 도입되였으며 선진적 경종법이 광범히 도입되고 각이한 지방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 품종이 배치됨으로써 기후 조건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높은 수확을 거두게 되였다. 이와 함께 농작물의 전 생육 기간을 통하여 각종 병해충과의 투쟁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해방전에는 각종 병해충이 계속 만연되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4년에 함남도 정평군에서는 논'벼의 70%, 발벼의 80% 이상이 병해충의 피해를 받았으며 북청군에서는 조, 콩, 메밀, 맥류 등 기타 작물의 늦벌레의 피해로 그의 수확고가 30%나 감소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갖 자연 피해는 물론 병충해의 피해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해 심한 봄 한발과 장마로 인하여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였으나 우리는 강력한 화학 약제의 생산 공급과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기술 집단에 의하여 병충해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에 기초하여 오늘 우리 농업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립각하여 장성하는 부문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 *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의 계속 부단한 장성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한 요인을 말하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사회주의적 대규모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체계와 방법을 우리 당이

가장 정확히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농업 체계의 확립과 그의 발전, 그리고 특히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은 농업 생산을 부단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하자면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대한 계획적 지도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아직도 농업 로동이 공업 로동에 비하여 기계화 수준이 낮고 수공업적 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로력 조직이 힘들다는 사정, 로동의 결과가 허다한 로력 공정을 거쳐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로력 평가도 단순하지 않다는 사정, 그리고 공업에 비하여 시기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려운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 등 농업 생산이 가지는 일련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적 대규모 농촌 경리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 성과 여부는 이에 대한 당과 국가의 구체적 지도 여하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보장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청산리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를 계기로 하여, 그리고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해결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농촌에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이 전면적으로 작용하게 된 바로 그때에 새 환경에 적응하게 농촌 경리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협동 농장들에서는 계획화 수준이 제고되고 주요한 력량이 농사에 집중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대규모 협동 경리의 우월성이 보다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되였다.

실로 청산리 교시 이후 농촌 기술 혁명이 더욱 촉진되고 협동 농장들의 생산 조직과 관리 운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 났다.

이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과학 기술에 토대하여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업 생산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가일층 개선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였다.

이 문제는 오직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의 기업적 지도 방법에 의한 지도로써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농업 협동 조합 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 하에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고 협동 농장에 대한 통일적, 기술적 지도 기능과 생산 기술적 봉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당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조직하고 과거 농업성에서 수행하던 농업에 대한 생산 지도 사업을 도적 범위에서 담당 수행케 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는 한편 농업 위원회를 조직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전망적 대책들을 연구하고 강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를 계획적으로 부

단히 그리고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였다.

특히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군내의 물질적 수단과 기술적 력량을 장악하고 이를 농촌 경리 발전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 집중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기술 혁명 수행을 촉진하고 있으며 농촌 경리를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급속히 올려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에서의 로동 조직, 계획화, 자재 공급, 재정 부기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협동 농장들이 군적으로 통일적인 련계 없이 산만하게 일하였다면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조직된 오늘에 와서는 협동 농장들이 군적인 범위에서 밀접한 련계를 맺게 되였으며 생산 계획도 기계 설비와 자재 등 모든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되였고 생산 과정에서 물, 기계, 전력 기타 자재들을 적시에 공급 받고 정확한 기술적 지도도 보장 받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가 국가의 전반적 방향에 확고히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부단히 발전하게 되였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우리 농촌에서 실현되고 있는 당의 정확한 기술 혁명 수행 방침이 낳은 커다란 힘에 의거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에 확립된 창조적인 농업 지도 체계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농업 생산을 해마다 계속·부단히 확고하게 장성시킬 수 있게 되였다.

물론 자연의 파괴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농촌 경리를 공업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 발전 법칙에 의거하여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된 이 위대한 성과는 결코 상술한 요인에 기초하여서만 이룩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 특히는 농업 정책의 정당성과 지도의 현명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달성한 이 성과는 커다란 국제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의 계속 부단한 장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는 사실은 사회주의 제도가 공업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기타 모든 인민 경제 부문을 자본주의 제도보다도 비할 바 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협동 경리 제도가 더욱 공고화되고 농촌 기술 혁명이 보다 철저히 실현되며 새 농업 지도 체계의 우월성이 더 훌륭히 발휘됨에 따라 농업 생산은 계속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추동할 것이며 우리 인민에게 보다 풍요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민적 체육 정책의 생활력

김 기 수

체육 문화의 진정한 개화 발전은 근로 대중이 지배 계급의 온갖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조건 하에서만 원만히 달성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체육은 전적으로 인민 자신의 행복과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인 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체육은 8.15 해방 후 비로소 모든 문화와 함께 근로 인민에게 복무하게 되였으며 이를 군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성숙되게 되였다.

일제의 식민지 제도 하에서 변변한 체육 시설 하나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국제 무대에 출연하여 로동당 시대에 개화된 우리 체육의 위력과 천리마 조선의 붉은 체육인의 슬기를 떳떳이 자랑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하여도 한 녀성 선반공이던 신 금단 선수는 400 및 800메터 달리기에서 오랜 기간 세계적인 선수들이 갱신하지 못하던 기록을 최근 3년 간 계속 갱신함으로써 전 세계 체육 애호가들을 경탄케 하였으며 세계 륙상계의 제 일인자로 당당하게 나서게 되였다. 또한 류 만형 선수는 지난 해에 1962년도 세계 마라손 경기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자전거 선수 윤 보렬, 김 정숙 동무들도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다.

최근 년간에 쏘련, 중국, 체코슬로바키야, 루마니야, 이타크 등 일련의 외국 1급 팀 또는 국가 팀과 대전하여 계속 큰 성과를 달성한 우리 축구 선수들은 1961년에 불패의 력사를 자랑하여 온 모쓰크바 스빠르따크팀을 타승함으로써 우리 나라 축구 기술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또한 지난 해에 제 38차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특별상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국제 사격 통신 경기 대회에서도 종합 성적에서 제 1위를 쟁취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는 권투, 체조, 탁구, 롱구, 무선 통신 등을 비롯한 일련의 종목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지난 해 10명의 선수들이 17회에 걸쳐 세계 기록의 높은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슬기롭고 용감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 시기에는 사실상 국제 체육 무대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조선 인민이 그처럼 짧은 시일 내에 달성한 이 모든 성과의 기저에는 체육을 사회주의 건설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그의 군중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항상 깊은 배려를 돌려 온 우리 당 체육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이 놓여 있다.

* *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초기에 벌써 체육 사업에서 일제 잔재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인민 대중 속에서 체육을 급속히 발전시킬 과업을 제시하였다. 1946년 10월 6일 체육인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 체육 사업의 당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고 체

육의 대중화가 우리 당 체육 정책의 기본이라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시였다.

《…해방된 민주 조선의 체육은 몇몇 개인 선수를 만들기 위한 체육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한가한 소수 특권 계급에게 독점되는 유흥물로 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조선의 체육은 참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건국 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즉 민주 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 투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단련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시야를 넓혀 주며 그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광범한 전 인민적인 체육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해방 후 우리 나라 체육 활동의 기본 지침으로 되였다.

이 교시 정신에 립각하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적응하게 우리 나라 체육 사업을 군중화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의 실현에로 근로자들과 전체 체육인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체육을 군중화한다는 것은 체육 사업에 대한 확고한 국가적 지도 체계를 수립하고 광범한 인민들을 이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며 그들이 체육 활동에 실제로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은 경제 건설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하여 각종 체육 기자재들을 생산하며 나라의 방방곡곡에 현대 시설을 갖춘 경기장들과 대중적 체육 시설들을 신설하는 데 력량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체육 간부 양성 기관이나 근대적 경기장도 가지지 못하였던 과거 처지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 모든 인민이 체육 문화를 향유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체육의 자유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처럼 단순히 선포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향유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모든 인민이 체육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당 정책의 인민성은 우선 각급 학교 내 체육 사업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서 표현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현대 과학 지식과 공산주의 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킴과 아울러 그들 속에서 체육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체력과 정서 면에서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를 육성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교육학의 요구이다.

동시에 인구의 4분의 1이 각급 학교에 망라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학교 내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체육의 군중화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체육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군중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은 학교 내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깊은 배려와 관심을 돌려 왔으며 온갖 물질적 보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학교들에서는 체육 사업이 확고한 과학적인 토대 우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김 일성 동지께서 지난 해 5월 3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지, 덕, 체를 겸비한 믿음직한 장래 역군을 육성할 데 대한 교시가

있은 후 학교 체육 사업에서는 실로 비약이 일어 났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 수업과 과외 체육 사업이 청소년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륙상, 체조, 수영 등 육체 단련의 기본 종목과 함께 각종 구기, 민족 체육, 국방 체육 등이 전례 없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국에 모범 학교로 알려진 창성군 약수 중학교에서는 전교 학생이 기계 체조와 체육 무용,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였으며 북청 고등 원예 학교에서는 1,300 여명의 전교생들이 다 어느 한 체육 종목의 선수로 출전할 수 있게 되였다.

학교 체육 사업이 전례 없이 발전함에 따라 수 많은 재능 있는 선수 후비들이 배출되고 있다. 작년에 열린 전국 고등 기술 학교 체육 대회와 전국 대학생 체육 축전에 참가한 5,000명 가까운 선수들 중 그 대다수는 3급 선수 이상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통강 고등 경제 학교에서만 하여도 작년에 103명의 선수 등급을 가진 륙상 선수들이 육성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 체육 기술 발전의 양양한 전도를 말하여 주고 있다.

체육은 비단 사람들의 신체를 단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애국주의,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 데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이러한 데로부터 당은 체육 활동을 단순한 흥미에서가 아니라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 진행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여 왔다. 그리하여 최근 년간에 우리 나라에서 군중 체육 활동이 애국주의, 혁명 전통 교양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게 된 것은 하나의 특징으로 된다.

광범한 청소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경대에로의 집단적 달리기, 보천보에로의 스키 계주, 혁명 전적지에로의 체육 려행, 야영, 등산, 탐험 등이 광범히 조직되고 있다.

1959년에 량강도에서는 3만 명을 망라하여 보천보에로의 스키 계주를 진행하였으며 이 해에 평양시에서는 30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만경대에로의 달리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런 체육 활동은 전통적인 행사로 그 참가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 당이 혁명 전적지 삼지연을 중심으로 72키로메터에 달하는 대스키장을 건설한 후 이곳은 우리 나라 체육인들에 대한 훌륭한 혁명 전통 교양의 교실로 되고 있다.

특히 김 일성 동지께서 1959년 8월에 사상 예술적으로 좋고 체육적으로도 훌륭한 집단 체조를 광범히 발전시킬 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집단 체조가 보다 심오한 내용과 기교를 갖추면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제4차 당 대회를 경축하여 평양시 내 2만 7,000 여명 학생들이 출연한 《로동당 시대》는 모든 관람자들과 각국 대표들의 경탄을 불러 일으켰다.

집단 체조에서는 지방적으로도 《로동당 시대》에 못지 않는 대작들이 창작되고 있다. 청진시 내 학생들은 작년에 《빛나는 우리 조국》과 같은 대작을 창작 출연하였으며 북청군을 비롯한 일부 군들에서도 1만 여명이 출연하는 훌륭한 대집단 체조를 창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진군 내 3,000 여명 청소년들은 스키 집단 체조 《보천보의 홰'불》을, 신포시 학생들은 해상 집단 체조를 창작 출연하였는데 집단 체조 참가자 수는 매년 100만을 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집단 체조를 비롯한 각종 군중 체육 사업은 광범한 대중을 체육 활동에 인입하여 체력을 단련시킴에 있어서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본받게 하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고히 발전하고 있다.

체육을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은 군중 체육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체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되게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각종 방법과 형태로써 체육 활동에 인입하여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산 활동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생산자들이 체육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 기업소들에 전임 체육 지도원을 배치하는 한편 필요한 체육 시설과 기자재를 보장해 주면서 하루 한 시간 체육 활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우리 나라 체육 활동의 기본으로 되는 인민 체력 검정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직업적 성격과 형태에 맞는 각종 생산 체조를 비롯한 일반 체육 경기들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생산 체육 경기는 전국적인 범위로 경기 체계가 확립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2.8 마동 세멘트 공장 보수 직장 천리마 초급 체육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초급 체육 단체들에서는 로동자들의 년령과 성별, 체력과 취미 등에 맞게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매일 정상화함으로써 50세를 넘은 년로자들까지도 인민 체력 검정에 합격하게 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68세의 로인이 전국 마라손 경기 대회에 출전하여 105리를 헐하게 달리는 것과 같은 사실은 인민적 체육 정책 하에서 꽃피고 있는 군중 체육 사업의 성과를 말해 주는 한 실례에 불과하다.

이상의 모든 것은 《혁명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체질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과거 빨찌산 투쟁할 때에도 주장하고 해방 후 군대를 조직하면서도 주장했고 또 지금도 주장한다…체육을 잘 해서 건강한 체질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있는 지식과 좋은 기술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사상을 관철하는 데서 얻어진 성과이며 체육과 교육 및 생산 로동의 결합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우리 당 체육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당은 체육의 대중화와 함께 우리 나라 체육 기술을 급속히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체육인들의 가장 영예로운 혁명 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실행에로 그들을 꾸준히 조직 동원하였다.

발전된 체육 기술과 훌륭한 도덕 품성을 동반한 체육 경기는 그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대담 무쌍한 용감성과 민감성, 작전적인 지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명쾌하고도 고상한 감정을 계발함으로써 그들을 씩씩하고도 락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육성한다.

뿐만 아니라 체육 기술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것은 국제 체육 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시위하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를 높여 주는 문제와도 관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체육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급속히 제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 당이 항상 체육 기술 발전을 주체적 립장에서 해결하도록 지도하여 온 사실이다

경기에서의 높은 성과는 선수들의 혁명적 정신 상태와 함께 긴장된 훈련을 통한 체육 경기 기술의 숙련과 전술의 옳은 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당은 《…교수와 훈련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훈련의 강도와 과학성을 일층 제고하며 선진 체육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기록 갱신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체육 기술을 높이는 투쟁의 기본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선수들에게 특유한 불굴의 투지와 강의한 체질, 민첩하고 재치 있는 특성 등에 맞게 훈련 방법과 기술 및 전술 체계를 창안 수립하며 선진 경험을 창조적으로 체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체육인들은 맑스-레닌주의 체육 리론 및 체육 생리학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키는 주체성 있는 교수 훈련 방법을 창안 도입하면서 훈련 부담과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땀을 더 많이 흘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훈련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육체는 현대 체육 기술이 요구하는 높은 속도와 힘, 인내력을 훌륭히 감당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에서 우리의 특성을 타산한 기술 및 전술 체계를 창안 도입함으로써 체육 기술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당은 체육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체육 과학 연구 기관들과 체육 의료 기관들이 체육 기술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체육인들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보장 받고 있다.

각 공장, 기업소, 기관 및 학교들에서 선수 등급 2급 이상을 소유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매일 2시간 이상 체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체육 경기에는 언제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여 있다.

체육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이 모든 대책은 일찌기 없었던 체육 문화의 찬란한 개화를 가져 왔다. 그리하여 낡은 기록들은 계속 갱신되고 있다. 1958년에 66명의 선수들이 116회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면 1959년에는 248명이 324회, 지난 해에는 10개월 간에 264명의 선수들이 무려 498회나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

오늘 국내에서 전례 없이 발전하고 있는 체육 문화와 국제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체육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체육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온갖 대책을 강구하여 온 당의 인민적 정책이 있음으로써만 우리는 해방 후 그토록 짧은 기간 내에 온갖 난관과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육 기술을 국제적 수준에 도달시킬 수 있었으며 국제 체육 무대에 출연하여 조선 인민의 영웅적 기개와 불굴의 투지, 우월한 재능을 떳떳이 보여 줄 수 있

었다.

* *

우리 당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된 첫날부터 남북 체육인들의 접촉과 단일한 민족의 힘을 합하여 국제 경기에 출전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1956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53차 총회에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을 위한 문제가 제기된 후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

특히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를 그 성원으로 가입시키는 동시에 조선에서 유일팀 구성을 남조선 측이 계속 반대한다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 선수들을 조선을 대표하여 제 18차 국제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후에도 우리는 고상한 동포애와 민족 단합의 정신으로 유일팀 구성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다.

그리하여 최근에 서서의 로잔느에서 열린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에서는 유일팀 구성을 위한 중요 문제들에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전체 조선 인민들과 체육인들의 념원을 실현하는 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유일팀 구성은 국기 문제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전면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유일팀의 구성 문제는 남조선 측이 민족 단합의 정신에서 출발하여 진지하게 합의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수천 년의 력사를 두고 한 강토 우에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가지가지의 찬란한 문화 전통을 창조한 슬기롭고 용감하고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국제 경기에 출연하지 못할 하등의 리유도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 조선의 전체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한결같이 념원하는 유일팀 구성의 전면적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종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온 것과 같이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의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한 찬란한 체육 문화의 성과가 남조선 체육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재능 있는 우리 민족이 힘을 합하여 기술을 련마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면 우리의 힘은 얼마나 더 강대해질 것인가.

남조선 체육인들은 진정으로 민족의 영예를 생각하며 민족 단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유일팀 구성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체육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조선 체육인들의 재능과 슬기를 국제 무대에서 떳떳이 자랑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 《정권》은 파탄된 남조선 경제를 수습할 수 없다

김 명 욱

군사 《정권》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

그들은 《5개년 계획》을 통하여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널리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남조선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의 첫해 사업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 갔다. 이에 대하여 《에이 에프 피》 통신까지도 남조선에서 《5개년 계획 착수 이래 이미 암담한 실패의 양상을 로출》시켰다고 하였으며 《한국 일보》도 《5개년 계획》이 《죽은 문서화》했다고 조소하였다.

《군사 정변》 후 남조선 경제는 성장된 것이 아니라 더욱 위축되였고 인민 생활은 향상된 것이 아니라 가일층 저하되였다. 생산 및 류통 질서의 마비, 기업의 파산과 실업의 증대, 대중의 구매력의 극심한 감퇴 등으로 경제 형편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리하여 《5개년 계획》 실행 과정에서 군사 《정권》의 매국 략탈적인 경제 정책과 그의 무능력성은 더욱 여지 없이 폭로되였다.

* *

원래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계획 경제》란 말할 수조차 없는 일이거니와 어쨌든 경제를 운영하고 발전시키자면 그에 소요되는 국가적 자금 토대가 있어야 하며 경제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타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은 이러한 고려와 타산도 없이 주관적으로 세워졌다.

우선 군사 《정권》은 《5개년 계획》을 수행할 아무런 밑천도 없었다.

《5개년 계획》은 총 투자액 25억 딸라를 예견하였는데 그 중 약 19억 딸라를 《정부 예산》과 《국내 자원》으로 조달하기로 되여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안받침할 자금이 전혀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 《정권》은 하루'밤 사이에 정권을 탈취한 깡패 집단으로서 하등의 경제적 및 사회 정치적 지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정 형편은 처음부터 수습할 수 없는 혼란과 동요 속에 빠져 있었으며 항상 적자 상태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

남조선에서의 경제의 전면적인 파탄과 인민 생활의 혹심한 령락으로 인민들의 세금 부담 능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 투 융자의 증대로

인한 예산 팽창과는 반대로 군사 《정권》의 재정 수입 원천은 항상 고갈 상태에 있다. 더우기 남조선 경제의 부담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군사비 지출의 증대는 군사 《정권》의 재정 형편을 가일층 악화시켰다.

이것은 작년도 군사 《정권》의 재정 예산 형편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즉 재정 예산의 세출 총액 중에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는 부문은 불과 58.1%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41.9%가 적자이며 그 중 약 80%를 미제의 《원조》 물자 대금인 《대충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는 메꿀 수 없는 적자 예산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장 면 《정권》에서 물려 받은 재정 적자 460억 원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그들의 재정적 파국을 가일층 심화시켰다.

이러한 형편에서 군사 《정권》은 화폐의 란발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난국을 극복하려 하였다. 지난 1년 동안에 통화량은 20% 팽창하였다.

그러나 생산에 기초하지 않은 화폐 란발은 결국 물가의 앙등을 초래하였다. 작년에 물가는 약 20% 등귀하였으며 새 해 벽두부터 그것은 더욱 심화되여 15일 동안에만도 최고 50%까지 껑충 뛰여 올랐다.

한편 군사 《정권》은 자금 조달에서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것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민간 자금》의 재원이란 하나는 예속 자본가들의 《투자》요, 다른 하나는 《내핍 생활》의 강요를 전제로 하는 가혹한 인민 수탈이다.

민간 자본의 투자는 우선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며 자금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 《정권》의 정치 사회적 기반의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거듭되는 실패는 기업가들로 하여금 불안에 싸이게 하였으며 투자에서 조심성을 가져 오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임 동결, 물가 및 생산에 대한 통제 등 군사 《정권》의 강제적인 통제 정책은 자본 활동을 억제케 하였으며 민간 자본의 투자 의욕을 극도로 저하시켰다.

그리하여 《군사 정변》 후 고정 자본의 투자는 30% 축감되였고 한때 자금 부족이 극심한 조건 하에서도 70~80억 원의 자금이 사장되여 있었다.

자금 조달을 위한 가혹한 수탈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조세 부담의 증가와 소위 《국채》의 란발로써 수탈을 강화하려 하였다.

작년에 남조선 인민들의 세금 부담은 그 전해에 비하여 실로 32%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군사 《정권》이 얼마나 남조선 인민들의 담세 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는가를 말하여 준다.

인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은 경제적 장성에 의한 국민 소득의 장성에 의거한다. 그런데 지난 1년 간 공업 생산의 전면적인 쇠퇴 몰락과 특히는 중 소 기업의 광범한 파산으로 로동자들과 도시 주민들의 실질 소득은 장성은커녕 오히려 20% 이상이 저하하였다. 농업 생산의 감퇴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절량과 아사의 위협에 직면케 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으로 되였으며 갈수록 인민들의 담세 능력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군사 《정권》의 수탈 정책은 처음부터 남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게 되였다. 소위 《영농 자금》 회수 정형만 보더라도 량곡 《매상》 때 판매 대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강탈적 방법까지 실시하였으나 작년 말까지에 회수한 것은 겨우 계획의 5%에 불과하였다.

자금 조달에서 완전히 곤경에 빠지게 된 군사 《정권》은 심지어 《정부 보유 외화》마저 투입하는 모험적인 도박까지 감행하였다. 즉 남조선 경제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최소한 7천만 딸라의 외화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것도 무시하고 감히 구 정권도 못했던 《정부 보유 외화》까지 투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파탄된 남조선 경제를 수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 군사 《정권》은 출로를 국내 자원 조달에 더욱 광분하는 한편 미제의 《원조》와 외국 차관을 인입하는 것으로써 찾으려 하였다.

《5개년 계획》은 14억 딸라의 미국 《원조》와 총 투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외국 차관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였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이 미국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 《정권》이 이처럼 《5개년 계획의 관건》으로 믿었던 《원조》와 차관도 작년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늘 미제는 자국의 경제적 위기 특히는 심각한 딸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상 원조》를 점차 줄이는 반면에 딸라로 상환하는 차관 형식을 증대시키는 이른바 《대외 원조 정책》을 전환하는 형편에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도 철저히 적용되였는데 작년도 소요액 2억 5천만 딸라로부터 1억 7천만 딸라로 대폭 축감되였다.

이것은 특히 외국 차관 도입에서 더욱 우심하게 표현되였다. 그것은 외국 독점체들이 남조선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지금 남조선 형편은 투자된 자본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여 리윤이 보장되고 장차 확실히 회수될 수 있다는 아무런 담보도 없다. 미국, 서독, 이태리 등의 독점 자본체들이 남조선에 대한 자본 침투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남조선에서의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자기 자본의 장래 운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외자 도입은 작년에 극히 부진 상태였는데 그것은 불과 5천만 딸라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5개년 계획》에 큰 위협으로 되였다. 이에 당황한 군사 《정권》은 《차관 교섭단》을 미국, 서독, 불란서 등에 보내여 《외자 도입을 위한 상업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완전히 보장되였다》고 하면서 애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에 만일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해줄 것을 《보증》하는 《외자 도입법》을 개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형편에서 지난 해에 군사 《정권》은 일본 독점 자본과 공공연하게 결탁하는 길에 들어 섰다.

최근 그들은 6억 딸라로 고집하던 《재산 청구권》 액을 3억 딸라로 낮추었으며 지어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떠나서 《차관》으로 일괄하여 해결하려는 비

법적 책동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나 《한일 회담》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청구권》 지불은 1964년 이후에야 있을 것이므로 군사 《정권》의 절박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것은 못 된다.

보는 바와 같이 군사 《정권》은 어느 모로 보나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이것은 바로 《5개년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가공적 《계획》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밑천이 없는 군사 《정권》은 또한 《5개년 계획》을 수행할 하등의 능력도 없다.

군사 《정권》은 처음부터 경제 정책에서 실책을 거듭하였으며 시책상 혼란과 동요로 하여 《5개년 계획》의 파탄을 더욱 촉진시켰다.

빈번한 예산의 재편성, 류례 없는 《증권 파동》, 《통화 개혁》의 완전 실패, 물가 통제의 파탄과 드디여는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소위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등이 이것을 실증해 준다.

우선 집권 18개월 동안에 군사 《정권》은 6차례에 걸쳐 예산을 뜯어 고쳤다. 평균 3개월만에 1차씩 예산을 뜯어 고친 것으로 되는 이 사실은 극도의 재정적 불안 속에서 그들이 확고한 년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겨우 분기간 예산으로써 재정적 위기를 미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이러한 책동은 재정적 혼란을 가중케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경제적 파국을 심화시킨 중요 요인으로 되였다.

또한 소위 《민간 자본》의 동원을 위하여 내세운 《증권 시장 육성 정책》도 군사 《정권》의 무능력성을 보여 준 데 불과하였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의 가치 법칙의 작용을 무시한 강제적인 《증권 시장 육성 정책》은 결국 100배 이상의 차이를 두고 등락하는 류례 없는 《증권 파동》을 일으켰다. 결과 이 증권 투기에 걸려 수 많은 자본가들의 가산을 탕진케 함으로써 자본의 동원은 고사하고 금융 체계의 혼란과 마비까지 초래하였다.

강압적인 《물가 통제》도 경제 형편을 호전시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악화시켰다.

《물가 통제》는 암거래, 매점 매석 행위를 성황케 하였으며 암시장 가격을 앙등하게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인플레를 더욱 격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통화 개혁》은 군사 《정권》의 무능력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였다.

그들은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화 개혁》을 실시하고 하루 아침 사이에 116억 원의 막대한 민간 자금을 동결시키는 모험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략탈 행위는 원래 빈사 상태에 있던 남조선 경제에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켰다. 《통화 개혁》 후 벌써 10일만에 중 소 기업체들의 65%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고 남조선 공업 생산은 《통화 개혁》 전에 비하여 3분의 1로 격감되였으며 상업 류통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에 당황한 군사 《정권》은 《통화 개혁》을 실시한지 33일만에 다시 이것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 정책의 거듭되는 실패와 그로 인하여 더욱 증대되는 경제적 혼란 속에서 군사 《정권》은 《5개년 계획》마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였으며 《기간 산업 우선주의》로부터 《가내 공업, 촌락 산업을 진흥》시키는 《안정화 정책》에로 전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군사 《정권》의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파산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침체 상태에 몰아 넣었으며 인민 생활을 일층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지금 군사 《정권》은 진퇴 량난에 처하여 있다. 재정 금융의 《긴축》과 저물가 정책의 강화로 인플레를 억제하고 《안정》을 보장하자고 하니 경제 활동의 위축을 더욱 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생산 활동을 자극하자니 물자의 뒤'받침이 없는 조건에서 인플레를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고 하여 심각한 자체 모순에 빠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남조선의 경제적 파탄은 더욱 심화되여 가고 있다.

이리하여 《5개년 계획》의 첫 해 사업으로 작년에 공업 부문에 예견하였던 19개의 사업 대상 중에서 명목상의 《기공식》이나마 진행한 것은 6건에 불과하였으며 《5개년 계획》의 핵심을 이룬다던 《울산 지구 건설》을 비롯하여 거의 전부가 착수도 못한 채 첫해 년도는 저물고 말았다.

오늘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뛰는 말과 같이 상승》하는 물가는 금년 첫 수주일 동안에만도 평균 20~30%나 더 올라 작년 1년 간에 등귀한 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쌀 기근은 벌써부터 남조선 천지를 위협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예속적이며 략탈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파국을 수습해 보려는 군사 《정권》의 기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 군사 《정권》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불만과 반항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물론 지어구 정치인들도 로골적인 반대와 불신임을 표시하고 있다. 얼마 전에 그들은 군사 《정권》의 《치졸 무능(稚拙無能)》한 경제 정책에 대하여 조소하면서 《대중을 기아 선상에 서게 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비판하였다(2월 6일 《합동 통신》).

현 남조선 형편에 대하여 미국 통신 《에이 에프 피》까지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남조선을 휩쓸고 있다》(2월 12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　　　*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경제는 그의 발전을 저애하는 기본 요인 즉 미제를 몰아 내고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 버리지 않는 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조선 경제는 결코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소생할 수 없으며 누구도 남조선 인민들의 절박한 경제적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공화국 북반부에 튼튼히 다져진 강유력한 물질 기술적 력량에 의거해서만이 복구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를 가진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여 있으며 대기술 부대와 경제 건설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 밑천으로 된다.

전체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게 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절박한 경제적 요구를 해결할 것이다.

남조선 문학의 현 상태를 보고

리 원 곤

남조선 출판물들에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남조선 문학의 현 상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게 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문학이 노는 사회적 역할은 대단히 큰 것이다. 문학이 특히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들은 언제나 문학 작품의 열렬한 독자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문학이 청년 학생들로 하여금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며 방탕한 생활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게끔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 남조선 현실의 암담한 사회상을 그대로 그려 내며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통찰하고 인민들에게 진실을 가리키려고 해도 총칼의 위협과 검열의 철조망 때문에 창작의 필봉을 마음 대로 구사할 수 없는 량심적인 작가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동정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남조선에서 문학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려고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작가들은 완전히 창작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으며 가혹한 반동의 채찍 밑에 시달리고 있다.

미제의 비호 하에 정권을 도적질하여 들어 쥔 박 정희 도당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가들과 함께 량심적인 작가 예술가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한국 예술 문화 단체 총 련합회》와 그 산하의 《한국 문인 협회》 등 각종 어용 단체를 조작하고 거기에 부르죠아 반동 문예 사상에 중독된 자들과 호구지책을 위하여 권력 앞에 굴종하는 나약한 소부르죠아적 문학 예술인들을 강제로 집결시켜 그들을 군사 《정권》의 파쑈적 매국 배족 정책의 전성관으로, 반공 사상의 전도사로 동원 리용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파쑈적 문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사회에서 진정한 문학 예술은 발전의 길을 억제 당하고 있는 반면에 진실을 외곡하고 제국주의 침략과 파쑈적 부패 정치를 비호하는 데 복무하는 반동적 문학 예술, 남조선 인민들을 타락과 패륜의 진창 속에 몰아 넣고 무기력과 굴종을 조장시키는 저렬하고 비속한 문학 예술이 판을 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파쑈적 문예 정책은 미제가 남조선에 설치하고 있는 《미국 공보원》이라는 사상적 침략 기관을 통하여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이다.

원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다른 모든 수단들과 함께 문학 예술을 중요한 침략 수단의 하나로 삼아 왔다. 그들은 유구한 력사 행정에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진보적인 민족 문화의 전통과 아름다운 생활 풍습을 파괴하고 패륜, 패덕과 승냥이 법칙에 립각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주입시켜 인민들 특히는 자라나는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자의식과 계급 의식을 말살함으로써 저들의 식민지 정책을 용이케 할 목적으로 실존주의를 비롯한 실용주의, 프로이드주의, 초현실주의 등 온갖 반동적 미학 사상을 퍼뜨려 놓았다.

미제와 군사 《정권》의 이러한 반인민적 문예 정책에 추종하면서 남조선의 일부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가적 사명과 민족적 량심을 저바리고 세기말적인 부패, 타락을 찬미하는 색정주의 문학과 염세주의, 허무주의, 인간 증오 사상을 설교하며, 지어 로골적으로 거짓을 꾸며 가지고 공화국 북반부를 비방 중상하는 작품들을 한갖 돈'벌이를 위해서 써내고 있다.

남조선 문학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추잡한 색정주의 경향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부르죠아 자연주의 문학은 미제가 부식시킨 썩어 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의 독소와 결합되면서 더욱더 광란적 색정 행각을 연출하고 있다.

인간은 본질에 있어서 《색정의 집계》이며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고 떠벌리는 프로이드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이 색정주의 경향의 작품들은 남녀의 성'적 관계를 자연주의적 수법으로 추잡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그들의 관계를 동물적인 색정 세계에로 전락시키고 인간 고유의 고상한 생활 규범을 파괴하며 패덕, 패륜을 로골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례컨대 단편 《원색 도표》 같은 데서는 사흘을 굶고 발'가락이 얼어 들도록 추워서 목을 움츠리고 달달 떨면서도 한갖 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쳐 날뛰고 있는 변태 성욕자의 구역질나는 추태를 그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높은 포부와 희망에 불타며 학습과 창조적 로동에 열중해야 할 청년 학생들을 방탕한 남녀 관계의 광란 속에 몰아 넣고 있는 소설 《나그네》나 조선 녀성의 아름다운 도덕 관념을 모독하고 처녀와 유부녀들의 음탕한 치정 행각을 로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우수와의 결별》 따위의 색정 문학을 가리켜 부르죠아 어용 문인들은 소위 《비정치적》, 《무당적》, 《순수 예술》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그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 색정주의 문학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절박한 사회적 문제로부터 떼내여 동물적인 관능의 세계에 몰아 넣음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남조선 현실의 심각한 사회적 모순을 보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정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반항 의식을 말살하는 수단으로서 미제와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에게 복무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남조선 문학에 색정주의를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으며 온갖 반동적 경향의 문예 작품

들에는 반드시 색정주의가 따라 다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있는 이러한 색정주의 작품들을 결코 문학 작품이라 할 수는 없다. 동시에 민족적 량심의 편린마저 저바리고 돈'벌이와 부르죠아적 악취미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추잡한 색정 세계를 날조하고 있는 작가들은 이미 작가의 자격을 상실한 《매문, 매춘부》들이며 그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이거나 간에 미제의 침략과 박 정희 군사 깡패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사촉과 문학 매춘부들에 의하여 꾸며진 온갖 추잡한 색정주의적 통속 문학이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속과 인륜 도덕을 무참히 유린하고 근로자들과 특히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을 썩어 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에 더욱더 물젖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장래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에 민족적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색정주의 문학과 함께 남조선에 《죽음과 비관의 철학》인 실존주의 사상을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을 특징 짓는 또 하나의 악독한 경향은 인생의 《부조리》를 부르짖으며 극도의 허무주의와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는 실존주의 문학이다.

실존주의 문학은 인간의 리상과 행복에 대한 지향을 부인하고 인생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남조선 사회의 모순과 악덕을 극복하려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의미한 것으로 설교하며 개인주의적 향락과 염세 자살, 인간 증오, 살인 등 온갖 범죄 행위를 로골적으로 찬미하고 있다.

남조선 잡지 《사상계》 최근 호에 게재된 시 《절망을 커피처럼》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사회악을 쓸어 버리고 나아갈 투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절망처럼, 절망을 아침차례 진한 한숨처럼, …커피는 절망처럼 스미고, 야릇한 위안 함께, 나는 포근히 잠든다》고 울부짖음으로써 죽음을 앞둔 극도의 절망감을 추동하고 있다.

왜 절망을 부르짖는가? 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포기, 남조선 사회의 모순된 제도에 대한 투쟁의 포기를 의미하며 침략자들과 압제자들에 대한 굴종의 설교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역시 최근에 발표된 소설 《닳아지는 살들》에서는 온 가족이 생활에 대한 아무런 리상도 없이 밤마다 철공소에서 들려 오는 쇠'소리에 불안을 느끼며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죽음이 다가 올 것을 기다리는 한 소시민 가정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실존》 이외인 사회와는 담을 쌓고 들어 앉아 고통을 감내하면서 허탈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 문제는 죽음에 관한 것》이라고 제창하는 실존주의 사상에 오염된 자들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길》, 《유피》(遺皮), 《형제》, 그리고 《두 죽음》 등을 비롯하여 자살을 찬미하는 소설들이 수다히 나타나고 있다.

실존주의의 악랄성은 그의 인간 증오와 살인 사상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대 문학》 최근 호에 발표된 단편 《지정의 수난(地丁의 受難)》에서는 로환으로 앓아 누운 단 하나 밖에 없는 육친인 할머니를 죽여 버려야겠다는 승냥이도 무색해 할 무서운 인간 증오 사상을 퍼뜨리고 있으며 단편 《6월의 그림자》에서는 안해와 어머니의 목을 눌러 죽이면서 《자 죽어라! 이제 박수를 쳐라!》고 야수적으로 웨쳐대는 성격 파탄자의 살인 만행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리성이나 사회적 의무감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며 생활에 대한 아무런 목적도 없이 허무와 절망 속에서 《부조리》하게 헤매이면서 비인간적 만행을 아무 꺼리낌 없이 감행하는 변태적인 자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살인, 강도, 색정, 자살 등 온갖 모험적 사건을 소재로 취급하고 있는 이 실존주의 문학의 사명은 명백하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은 이러한 실존주의 문학을 통하여 남조선 사회에서의 민생고와 모든 불행은 사회 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존재》 자체에 고유한 속성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참고 감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설교함으로써 인민들의 반항 의식을 무마하며 저들의 침략 정책과 파쑈 통치의 본질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반공》 문학을 고취하는 데서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제와 군사 깡패들에게 매수된 남조선의 일부 악질적인 반동 작가들은 《나무들 비탈에 서다》를 비롯하여 최근에 발표된 《너와 나의 골짜기》, 《응보》 등 공화국 북반부를 중상 비방하며 동족 상잔의 전쟁을 고취하는 소설들을 쓰고 있다.

이것들은 례외 없이 사실에는 전혀 없는 무근거한 거짓을 꾸며 내여 가지고 남조선 인민들의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을 깎아 내리고 하며 인간이 인간을 증오하는 《승냥이 법칙》을 설교함으로써 민족의 분렬과 전쟁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작품들은 남조선 인민들 사이에서도 전혀 인기가 없으며 조소를 받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반동적 문학 작품들과 함께 우리의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학 유산들을 란폭하게 유린 말살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제와 괴뢰 통치배들에게 고용된 일부 어용 평론가들과 문예 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허무주의적인 《무전통론》과 사대주의적인 《모방 문학론》이 그것이다.

이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조선 민족은 오늘 계승 발전시킬 만한 민족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뇌까리면서 서구라파와 미국의 퇴폐적 반동 문학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자들은 우리 문학의 력사를 란폭하게 외곡하면서 우리의 고전 문학 유산에서 일체 애국적이며,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고귀한 전통을 거세하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것만을 고집하면서 심지어 조선 문학의 훌륭한 고전 작품으로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춘향전》을 《색정 문학》이라고까지 모독 《평가》하고 있으며 《심청전》, 《사씨 남정기》 등도 우리 조선 인민의 문학 유산으로 될 수 없다고 지껄이고 있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것들이며 격분을 자아내는 타매할 현상들이지만 이러한 온갖 반동적 문학 조류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비호 하에서 오늘 남조선 문단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이러한 부패한 반동 문학이 사회와 인민들에게 끼치는 후과를 생각할 때 그의 엄중한 해독성에 대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진정한 문학의 사명은 그것이 언제나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당해 사회의 선진적 사상을 시대 정신의 높이에서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을 사회의 혁신과 진보와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는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 땅에서 몰아 내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아와 죽음의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절실한 리해 관계이며 민족 지상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남조선 작가들은 응당 이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들의 작품을 이바지하여야만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일부 작가들은 자기들의 창작 활동으로써 이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복무할 대신에 퇴폐적인 작품들을 쓰는 것으로써 오히려 인민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씌우며 조국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전락되는 길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진정한 문학은 그것이 낡고 부패한 것을 타매하며 현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회 정치적 및 도덕, 륜리적 규범으로 일반화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며 그들을 보다 아름다운 리상의 실현에로 부르는 데서 그의 가치와 사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예술가들은 예로부터 정의를 위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일찌기 최 치원, 리 규보, 김 시습, 박 인로 등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봉건 통치배들의 악정과 패덕을 보고 결코 현실에서 외면하지 않았으며 인민의 행복을 념원하는 불같은 열정을 안고 사람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는 당시 불교의 허무한 교리와 주자학의 교조를 반대하여 민족의 주체를 바로 잡는 선진적인 사상과 리론을 주장하여 그 이름과 영예를 일세에 떨치였다.

어지럽고 고루지 못한 위정자들의 죄행을 반대하고 근로하는 사람의 소박한 형상을 그린 박 지원의 《허생전》이나 관가와 형리들을 《승냥이》, 《범》이라고 규탄한 정 다산의 《전간 기사》의 주옥같은 사상은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오늘 남조선 작가들은 응당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그가 진정으로 작가의 사명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인민의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작가가 인민의 립장에 서서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며 그들의 념원을 자기의 작품에 형상하려고 할 때는 결코 반동 통치배들의 매국 배족적 행위를 보고 외면해 버릴 수 없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비호할 수 없을 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문필가는 《정필 순사》(正筆 殉死)라는 글에서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라의 흥망을 질머지고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만이 병정의 영예라면 붓을 들고 바른 것을 적다가 붓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이 문필인의 정도(正道)임은 말할 나위 없겠다. 정필 순사는 문필인의 정의이기에 정이 아닌 그 앞에 굴복할 양이면 차라리 붓을 꺾는 침묵이 도리여 현명할 것이다》.

과연 오늘 남조선에는 군사 《정권》의 탄압이 심한 조건 하에서도, 일부 반동 작가들에 의하여 문학 예술계가 추잡해진 상태 속에서도 자기들의 민족적 및 애국적 지조를 굳게 지키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

이러한 작가들은 기아 선상에서 고통받는 인민들의 참혹한 생활과 말세경에 다다른 남조선 현실을 비판 폭로하면서 부패 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례컨대 소설 《후일담》의 작가는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괴뢰 도당과 괴뢰 경찰의 대중 학살을 규탄하였으며 소설 《무명기》의 작가는 4월 인민 봉기 당시 괴뢰 경찰의 인민 학살 만행과 괴뢰 지배층에 아부하는 어용 언론인들의 추악상을 폭로하였다. 소설 《판자'집 그늘》의 작가는 모순된 남조선 사회의 최하층에서 시달리는 판자'집 풍경을 묘사하면서 통치배들을 타매하고 있으며, 4월 인민 항쟁 때의 청년 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진실하게 묘사한 소설 《대렬 속에서》는 부정 부패한 것에 대한 맹렬한 항거의 정신과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남조선 사회에 대한 저주는 결국 남조선 작가들 속에서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규탄과 배격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로 나아가게 하였다.

소설 《백의의 수기》의 작가는 《헤아리기조차 거치장스러울 만치 많은 삶을 앗아 가고 또 그 여파로 인해 눈물 없이 겪을 수 없는 비극이 계속되는 것》은 오직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략탈에 있다고 규탄하였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난을 추방하고 새로운 생활을 위하여 박차고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겠다… 그러니까 낡은 질서로부터는 아무 것도 이어 받을 것은 없다. 낡은 것으로부터는 무지와 비참, 무질서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고 함으로써 낡은 제도의 청산과 새 사회 제도에 대한 동경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적 경향의 작품들은 그 내용과 창작 수법에서 일정한 제약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남조선 문학 예술계에 거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힘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이러한 진보적 경향의 문학 예술 력량의 확대 발전은 결코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군사 《정권》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이러한 문학 예술의 장성을 저애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과 탄압 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공보 자문 위원회》라는 감시 기관을 괴뢰 《공보부》 내에 설치하고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 동태와 작품 내용을 감시하는 등으로 파쑈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과 결부시키려고 결심한 량심적인 작가 예술가들은 어떠한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삼엄한 검열을 뚫고 용감하게 남조선 현실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진실한 작품들을 더욱 많이 창작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단막 희곡 《거룩한 직업》은 대학 교수의 집에 침입한 《도적》의 대화를 통하여 남조선의 사회악을 신랄하게 야유하면서 상징적 수법으로 남조선 통치배들을 인민들의 재물을 공공연히 강탈하는 도적이라고 타매하고 있다.

역시 최근에 발표된 《소작새》에서는 괴뢰군 징집에 걸린 지주'집 아들 대신으로 남편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빼앗기고 단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마저 굶주리다가 죽게 되자 세상을 통탄하던 나머지 미쳐 버리게 되는 돌이 엄마라는 순박한 녀성의 비참한 운명을 통하여 억압과 착취,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남조선 사회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 발표된 단편 《세월》의 작가는 자신의 생활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 궁짜를 붙인 귀신이 발호하였다》고 군사 깡패들을 규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량심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들이 남조선의 암담한 사회 현실과 그의 모순을 심각히 보고 느끼면서도 미제와 군사 깡패들의 총칼의 위협 때문에 그것을 신랄하게, 마음 대로 쓰지 못하고 우회적 수법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넉넉히 짐작하게 된다.

이렇듯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이 제 아무리 발악적으로 량심적인 작가들의 진정한 문학 활동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정의의 편에 서려고 결심한 그들의 량심과 작가적 지조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리하여 인민의 편에 서려는 작가들의 대렬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이며 부패 정치에 대한 폭로와 항거의 목소리는 더욱 세차게 울릴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리는 절로 찾아 드는 것이 아니며 오직 완강한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을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교양하려는 작가는 그 자신이 먼저 열렬한 투사로 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남조선 작가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문예 정책으로 파괴 유린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적극 옹호하며 온갖 말세기적 부르죠아 반동 문예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와 인민을 위한 참된 문필가로서의 영예를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조국 통일의 위업이 실현되고 남북이 자유로운 래왕을 하게 될 때 그들도 투사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지니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기치 밑에 찬란히 개화 발전한 민족 문화의 성과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답 학습

《인민적 자본주의》의 반동적 본질

《인민적 자본주의》는 제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제도를 변호하는 미국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였다. 현대 자본주의는 《변하였다》는 것이 《인민적 자본주의》의 기본 사상이다.

이 《리론》은 오늘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서부 독일, 오지리 등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독점 재벌들의 중요한 선전 수단으로 되고 있다. 1959년 미국 워싱톤에서는 《인민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전람회가 열렸는데 이 전람회를 계기로 미국 지배층과 그 대변자들은 《미국은 인민적 자본주의다》, 《미국은 무계급 사회로 전화되고 있다》, 《모든 미국 인민은 다 자본가다》 등등의 표제 하에 대선전 깜빠니야를 벌려 놓았다. 심지어 당시의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까지도 출두하여 이 전람회는 미국의 《인민적 자본주의》가 인민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독점 재벌들과 그 대변자들은 《인민적 자본주의》를 현대 자본주의의 착취적 본질을 엄폐하며 로동 계급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무기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리론의 반동적 본질을 명백히 리해하는 것은 부르죠아 반동 사상 조류를 폭로 분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인민적 자본주의》의 설교자들은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에서 주식 회사가 확대되고 주권이 광범한 주민 대중 속에 판매됨으로써 자본 《확산》 과정이 발생하고 기업 소유권이 소수의 독점체들 수중으로부터 광범한 인민 대중의 수중으로 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론증》하려 하고 있다.

즉 생산 수단에 대한 사자본주의적 소유는 소액 주권의 방매로써 간단하게 사회주의 생산 관계로 교체되고 계급적 차이도 손쉽게 소멸되며 보다 많은 로동자들이 소액 주권을 구입함으로써 자본가로 전화되며 자본가는 전체 사회적 리익에 복무하는 역군으로 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미국의 기업소들이 소액 주권 소유자들을 망라하는 협동적 소유로 되고 있는가? 즉 로동자들이 기업주로 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모든 사람이 다 주권의 소유자인가 하는 문제와 또 미국 근로 대중의 주권이 미국 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만 해명하면 된다.

미국 당국의 공식적 자료에 의한다 해도 1957년 미국 전체 가정의 89%에 해당하는 가정은 한 건의 주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1만 딸라 이상의 주권을 가진 가정수는 불과 3%에 불과하였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의 재부가 수백만 대중의 소유로 되고 있다는 《인민적 자본주의》의 설교자들의 《론거》가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부지쉬는 자기 저서 《인민적 자본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자인하고 있다. 즉 미국 로동 계급을 계층별로 볼 때 무기능 로동자들 가운데서 주권 소유자는 불과 0.2%, 중기능 로동자들 속에서는 1.4%, 기능공 가운데서는 4.4%의 로동자들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즉 미국 로동 계급의 절대 다수는 아무러한 주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으로써 벌써 모든 로동자들이 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자본가로 전화되였다는 《인민적 자본주의》의 신화는 완전히 깨여지고 만다.

그러면 이제는 로동자들의 수중에 있는 주권이 전체 자본에서 얼마마한 비중을 차지하며 소주주들의 생활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미국 로동자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가치는 전체 주권의 0.2%밖에 되지 못한다. 반면에 미국 독점 재벌 듀퐁의 개인 자본은 미국 전체 로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 10배도 더 된다.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국 자본의 99.8%는 대독점 재벌들이 점유하고 있다. 현실은 《인민적 자본주의》의 설교자들의 선전과는 정반대로 독점의 주식 형태는 《협동적 소유》의 형성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독점 재벌에 모든 재부가 집중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르간, 록펠러, 듀퐁 등 8개 독점 재벌들이 미국 경제의 주요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 바로 이들이 미국 총 공업 생산의 60%, 그 중 강철 생산의 70%, 군수 생산의 80%, 자동차 공업의 9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인민적 자본주의》의 설교자들이 떠드는 로동자들의 《자본》은 죄다 합해도 미국 보통독점 자본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생활에 하등의 영향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례로서 몇 년 절약하여 구입한 800 딸라의 주권이 4년 후에 가져 오는 리윤은 로동자 2일 간의 로임을 초과하지 않는다. 때문에 로동자는 비록 몇 백 딸라의 주권을 소유한다 해도 기본 생활 수단은 자기의 로동력이며 따라서 로동자의 처지를 면할 수 없다.

미국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다. 그런데 독점 재벌들이 광범한 대중 속에 주권을 널리 방매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로동자들을 보다 가혹하게 착취하려는 데 있다. 독점 재벌들은 로동자들의 로임에서 일정한 부분을 주권대로 징수하여 곧 자본으로 회전시킨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소여액을 다 지불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주》로 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권의 《민주화》란 실지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한 착취 방법에 불과하다. 자본의 《민주화》에 대한 신화를 비판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부르죠아적 궤변가들과 기회주의적인 〈사이비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주권 소유의 〈민주화〉로부터 〈자본의 민주화〉와 소생산의 역할 및 의의의 강화 등등을 기대(혹은 기대한다고 단언하고 있다)하고 있지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 주권 소유의 〈민주화〉는 금융 과두 정치의 위력을 더 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레닌 전집, 제 22권, 294페지).

뿐만 아니라 독점 재벌은 주권의 광범한 매매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을 은폐하며 로동 계급의 혁명성을 마비시키며 자본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즉 그들은 로동자들도 공동 기업주이므로 파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민적 자본주의》의 설교자들은 소위 수입의 균등화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 즉 수입 부문에서 일어 난 《혁명》으로 하여 기업주, 은행가, 로동자, 사무원의 수입이 점차 균등하게 되여 간다는 것이다.

수입의 규모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소멸을 설교하는 《인민적 자본주의》의 《리론가》들은 수입에서의 계급적 차이의 《소멸》을 《증명》하려고 헛되게 애쓰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에는 그 어떠한 수입의 균등화도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1955년도 분배 정형 통계를 보면 전국의 7.4%에 해당하는 세대가 총 수입의 65.4%를 차지하였고 92.6%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세대에는 총 수입의 34.6%밖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실은 미국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수입에서의 《균등화》가 아니라 반대로 빈부의 차이가 극심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수입에서의 혁명》이란 사실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근로 대중의 빈궁화를 의미할 따름이다.

케네디가 최근 《일반 교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오늘 미국에는 《3천 200만의 미국인들》이 《빈궁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으며 《학교에도 못 다니고 취직도 못 하고 있는 100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도시의 길'가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미국에서도 가장 부유하다는 뉴욕에는 200만의 빈민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천 700만의 빈민이 있다.

보건 위생 시설도 역시 한심한 형편에 있다. 돈 없는 빈민층은 완전히 의료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가혹한 로동과 불비한 로동 조건으로 하여 최근 년간 미국에서는 신경 환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 가고 있다. 미국 의학 련맹 위원장 헤스의 말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전체 환자의 50%가 신경 환자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예산에서 보건 부문 지출액은 전체 예산의 0.7~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위생 사업도 보장할 수 없는 예산이다. 결과 미국에서는 단지 의료 시설의 결핍으로 죽어 가는 젊은 사람의 수가 매년 평균 30만에 달하고 있다.

《인민적 자본주의》의 설교자들이 《극락 세계》로 묘사하는 미국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다.

모든 사실은 주식 회사의 확대와 소

주권의 광범한 판매가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본질을 《변경》시키거나 자본의 《민주화》를 초래할 수 없으며 도리여 인민 대중에 대한 독점체들의 착취를 더욱 강화하고 빈부의 차이를 더욱 격심케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르죠아 변호가들이 소위 《인민적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현대 자본주의가 《변하였다》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제 2차 대전 후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고 그 위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세계의 전반적 위기가 갈수록 더욱 심각화된 사정과 관련된다.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부단한 장성과 자본주의 세계의 전반적 위기는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독점체들에게는 자본주의를 미화하고 자본주의 국가 근로 인민을 기만하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킬 것이 더욱 요구되였다.

자본주의 변호자들은 또한 《인민적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제도의 견인력을 막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인민적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론증》함으로써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로동 계급을 떼여 내려고 망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독점 재벌들은 그 어떠한 술책과 기만 수단으로써도 멸망에 처한 미국 자본주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세찬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근로 대중 간의 계급적 모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화되고 있다. 모순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자본주의는 마침내 이 투쟁의 거류 속에 매몰되고야 말 것이다.

리 종 윤

근로자 제 4호 (루계 218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2월 20일　인 쇄 • 1963년 2월 17일

ㄱ—330117　값 40전

서적 안내

《조선 통사》(상)

판형 국판, 850페지

《조선 통사》(상)는 6년 전에 발행한 《조선 통사》(상)의 증보판으로서 우리 나라 원시 시대로부터 1860년대 초에 걸치는 수천년 간의 우리 인민사를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원칙에 따라 더욱 옳게 체계화하였으며 주체의 립장을 관철하여 과학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책은 그간 우리 나라 력사학계가 달성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여기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래 어용 학자들, 사대주의 력사가들, 부르죠아 력사가들이 조선 력사를 위조, 외곡한 이러저러한 《학설》들을 분쇄하고 주체를 튼튼히 확립한 데 있다.

력사가들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계급 국가의 형성 과정 그리고 노예 소유자 사회에 관한 토론을 일단 결속하고 3국에 앞서서 노예 소유자 사회를 토대로 하는 첫 계급 국가들인 고조선, 부여, 진국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론증함으로써 우리 력사를 남의 력사에서 빌려 온 틀에다가 맞추어 버리는 교조주의적인 견해와 일반적 합법칙성이 아닌 그 어떤 변칙(變則)이 작용하는 이지러진 력사로서 규정하려는 부당한 경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인류 사회의 합법칙적 발전 단계를 다 거친 온전한 우리 인민의 력사를 천명하였다.

이 책은 3개 편, 23개 장으로 구성되였는바 제 1편에는 원시 사회, 제 2편에는 노예 소유자 사회, 제 3편에는 봉건 사회로 체계 있게 서술하였다.

《조선 통사》(상)는 력사 교과서로서 근로자들이 유구하고도 풍부한 우리 나라 력사 학습에서와 그들의 문화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조선 력사 연구자들에게는 물론 대학들에서의 교수 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했다.